

제 2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9월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1 애덤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 애덤 스미스(1723-90년)는 지금까지 쓰인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중 하나인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의 저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다. 스미스는 경제생활의 원리들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에 기초하여, 고대의 형태에서 뚜렷하게 근대적인 형태로 변형시켰다.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의 축약이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다.

고대의 사고에서 벗어난 스미스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사익 추구가 공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 경제학의 옛날 견해

중상주의(mercantilism)라고 불러, 그것은 국부를 한 나라의 금 및 은 저장(stock)으로 측정했다. 해외에서 재화들을 수입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 부라고 생각되는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재화들을 수출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이 귀중한 금속들이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무역은 오직 판매자에게만 이익을 주었지, 구매자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 국가는 오직 다른 국가들이 더 가난해질 때에만 더 부유해질 수 있었다.

이 견해에 기초하여,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대한 통제 체제 - 수입품에 대한 조세, 수출업자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 가 세워졌다. 심지어 영국 자신의 아메리카 식민지들도 이 체제에서는 불리하게 되어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중략- 도시들은 다른 읍들로부터의 장인들이 자기들의 장사를 열심히 하기 위하여

이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은 왕에게 보호적 독점을 달라고 청원하였다.

돈과 화폐는 같지 않다. 금의 양이 아니라 효익이 중요하다.
부를 만들기 위함은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식민지 시대의 붕괴와 공황의 구조와 유사하다. 돈 만을 부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식민지에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식민지 늘리기에만 집중하였다. 어찌되었든 생상품들은 자꾸 쌓이게 되었고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하게 되었다.

• 자유로운 교환의 생산성

스미스는 이 거대한 중상주의 체계가 실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유로운 교환에서는 양쪽 모두 더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중략-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참으로, 만약 우리의 고객들이 부유하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더 많다. -중략- 한 국가의 부는 그것의 금고에 있는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상업의 총량 - 오늘날 우리가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부르곤 하는 것 - 이다.

•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질서

그는 인간들이 서로 함께 살고 일하는 방법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따라 사회적 조화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깨달았다. 자유와 자기 이익은 혼란에 이를 필요가 없고 -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리는 것처럼 - 질서와 조화를 낳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가장 잘 자라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자유로운 교환이 있고 강제가 없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이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규칙들을 필요로 했는데, 불을 담는 데 불 바구니가 필요한 것과 꼭 같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들, 정의와 도덕의 규칙들은, 중상주의 당국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개입들과 아주 다르게, 일반적이고 비개인적이다.

사익이 공익을 창출한다.

일반적인 비개인적인 법이 영국의 보통법이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개입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법과 비슷하다.

• 윤리의 심리학

스미스는 교육받은 지식인이 - 과학, 예술, 문학, 철학, 고전 그리고 윤리학에 관해 -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거대한 장서를 축적했고 법과 정부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중세의) 자유 7과목(liberal arts ·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수, 기하, 천문, 음악으로 구성)의 역사도 계획했다. 그리고 처음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국부론>이 아니었고, 윤리에 관한 책, <도덕 감정론>이었다.

• 자기 이익과 미덕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될지 몰라도,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록 자기가 그들의 행복을 보는 즐거움 외에는 그들의 행복에서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을 자기에게 필요하게 하는 약간의 원칙들이 자기의 본성에 명백히 있다.'

바꿔 말하면, 인간 본성은 복잡하다. 빵 굽는 사람은 자비에서 우리에게 빵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익사하는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강물에 뛰어들도록 자극하는 것이 자기 이익도 아니다. 스미스의 책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도덕적 영역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생산적으로 함께 살 수 있 - 고 정말 사 - 는지 식별하려는 보완적인 시도들이다.

•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법 체계와 윤리 체계를 발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스미스는 - 과학, 언어, 예술 그리고 상업을 포함하는 - 인간 사회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 과도하게 뿜내는 어떤 이성보다도 어떻게 더 나은 안내자인지 보여주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모든 체계들에서 특혜나 제한의 어느 하나'를 제거하고, '자연적 자유'에 의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효율적인 사회적 질서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초기의 강의 경력

그의 철학 과목은 신학, 윤리, 법학 그리고 공공 정책을 다루었다. 법학과 정책의 강의들은 수년 후 <국부론>에 대부분 그대로 나타날 (가격 체제의 작동, 보호무역주의의 단점 그리고 정부 제도와 경제 제도의 발달과 같은) 많은 아이디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성공하게 할 것은 윤리에 대한 스미스의 성찰들이었다. 1759년에 그는 그것들을 <도덕 감정론>으로 출간했다.

3 <국부론>

• 책의 광범위한 주제

스미스의 혁명적인 견해는 부란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국가의 금고에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가의 부의 진정한 측정치는 국가가 만들어 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다. -중략- 또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는 이러한 생산 능력이 분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중략- 스미스의 세 번째 주제는 국가의 미래 소득이 이 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생산 과정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 -중략-

네 번째 주제는 이 체제가 자동적이라는 것이다. 물건들이 희소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략- 공급 과잉이 있는 곳에는, 가격과 이윤이 낮고 생산자들은 자기의 자본과 기업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중략- 그러나 오직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있을 때에만 그 체제는 자동적이다. -중략-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스미스는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방위를 지속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교육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장 경제를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해야 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방식들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 생산과 교환

핀 공장의 예를 사용하여, 스미스는 분업 - 노동 전문화 - 이 막대한 산출물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략-

이 전문화는 아주 효율적이어서 그것은 회사 안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산업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국가들 사이에서도 생긴다. -중략- 결과적으로, '노동의 생산력의 가장 큰 개선은,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든 돌러지거나 적용되는 숙련, 솜씨 좋음, 그리고 판단의 더 큰 부분은, 분업의 효과였던 것 같다.

분업은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일용품의 생산에서조차도 수천의 사람달의 협동을 이용한다. -중략- 그러나 수천 명의 고도로 효율적인 전문가들의 이러한 협업은 선진 국가들의 큰 부의 원천이고, 양털 외투와 같은 품목들을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이것은 스미스가 '국민들의 가장 낮은 계급들에게도 확대되는 보편적인 풍요'라고 부른 것이다.

• 교환으로부터의 상호 이득

'수송하고, 물물 교환하며, 화폐 교환하는' 성향은 인간 행동의 타고난 그리고 보편적인 특징

인데, 양 당사자 다 편익을 얻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참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가 그것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스미스는 편익이 상호적임을 보여준다. 교환함으로써, 양쪽 다 자기들이 원하는 재화들을 자기들이 혼자 힘으로 그것들을 만들 때 들여야 할 노력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얻는다. 각각은 그 교환으로 더 부유해진다. 바꿔 말하면, 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상업으로 창출된다.

스미스의 유명한 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찬을 기대하는 것은 고깃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의 자비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으로부터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가 아니라 그들의 자애에 말을 걸고, 결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득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애'나 '자기 이익'이라는 말로, 스미스는 '탐욕'이나 '이기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의미는 18세기의 의미, 즉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함으로써 기꺼이 이득을 얻으려는 어떤 불쾌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지를 돌보려는 전적으로 마땅하고 적절한 관심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아주 타고난 것이고 중요해서 <도덕 감정론>에서 그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부른다.

• 가치의 지수

스미스는 정말로 우리를 노동 가치설로 이끌고 있지 않다. 그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주요 경제 측정치로 간주하는 것, 총 생산 비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수렵 사회에서는, 이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서 멀리 떨어져 진화했다. 그리고 스미스는 더욱 현대적인 경제 체제들에서 사용되는 다른 생산 요소들 - 토지와 자본 -을 계속해서 식별한다. [생산 요소라는] 이러한 개념도 다시 오늘날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을 도입하여 가격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전 생산 및 분배 체제를 움직이는지도 검토한다.